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46호> 2020년 3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오이타 소식>

‘제1회 한일우호회 in OITA’ 개최

지난 2월 8일, NPO법인 일한예술문화교류회(인성은 이사장)가 오이타시 iichiko종합문화센터에서 ‘제1회 한일우호회 in OITA’를 개최했습니다.

1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이벤트에서는 2001년 1월 도쿄 신 오쿠보역 플랫폼에서 선로로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희생된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씨의 이야기를 다룬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등 3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또 이수현씨의 어머님 신윤찬씨를 초청하여 한일 관계에 대한 의견과 민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벤트 전날에는 한일우호회 관계자 여러분께서 현청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인성은 이사장은 “한일관계가 악화되어 오이타 공항의 한국 노선도 운휴 중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민간 교류를 늘려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나카시마 기획진흥부장 또한 “한일관계가 좋지 않다고하지만 개개인의 교류는 계속 실시되고 있고 오이타를 찾아주는 개인 여행객도 많다. 이번 이벤트를 통한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코노에정 소식>



What`s up, OITA! 한국어판 제32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지정에 이어 이번 호는 코코노에정으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코코노에정의 유일한 중학교인 코코노에료쿠요중학교와 대만 가오슝시의 두 학교와의 교류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준비해 2018년 가오슝에서 진행한 학생 교류를 시작으로 2019년 10월에는 가오슝의 중학생 16명이 코코노에정을 방문했고 12월에는 코코노에정에서 7명의 학생이 가오슝을 방문했습니다.

대만 학생들은 코코노에정에서 농촌민박을 하며 일본의 농업 문화 체험과 관광을 하고 학교에서는 조리 실습에도 참가했습니다.

대만에 방문했을 때는 가정 수업에서 대만 과자를 만들고 기술 수업에서 목제 피리 만들며 대만의 문화를 피부로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자매학교 제휴를 맺었고 앞으로는 직접 만나는 교류뿐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교류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국제 감각을 키우고 시야를 넓혀 폭넓게 활약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코노에정 교육진흥과>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46호> 2020년 3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 딸기 따기 체험 농원 (돔 이치고엔)



제철을 맞이한 딸기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딸기 농원에서 신선한 딸기를 맛보는 딸기 따기 체험을 소개합니다. 오이타현은 온난한 기후 특성으로 딸기 재배가 활발하며 딸기 따기 체험이 가능한 농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이타 시내와 가까워 대중교통으로도 방문할 수 있는 ‘돔 이치고엔 (ドームいちご園)’은 접근성이 좋아 많은 체험객으로 붐비는 곳입니다. 매년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5월 말에 걸쳐 주말 및 공휴일마다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 수확한 딸기를 100g당 200엔에 구매할 수 있는 농업 체험 코스와 40분간 그 자리에서 맘껏 딸기를 따먹을 수 있는 무제한 코스로 나뉩니다.

딸기가 재배되고 있는 하우스 안은 탐스럽게 익은 딸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있고 상큼하고 달콤한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돔 이치고엔’은 오이타현 브랜드 딸기 베리츠를 포함해 베니훗페, 사가호노카, 카오리노, 카나미히메, 아키히메까지 총 6품종의 딸기를 재배하고 있고 모두 수확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맛을 비교할 수 있는 것도 매력입니다.

농원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께서 직접 딸기 따는 법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딸기는 뾰족한 끝부분이 제일 달기 때문에 꼭지 부분부터 먹어야 더 맛있게 느껴지고 열매가 80%만 빨개도 충분히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설명대로 잘 익은 딸기를 골라 크게 한 입 베어먹었더니 입 안 가득 신선함과 달콤함이 퍼졌습니다. 한창 시즌이기 때문에 딸기 스무디, 딸기 케이크 등 딸기로 만든 음식이 눈에 띄지만 아무래도 직접 따서 먹는 딸기는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딸기가 성인 허리보다 낮은 위치에 달려있어 어린이들이 체험하기에도 좋아 가족 단위 체험객도 많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반가운 이 계절, 가족과 함께 봄 향기 가득 머금은 딸기가 있는 곳으로 나들이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영업시간 : 주말 및 공휴일 10:00~16:00

🍓 체험요금 : ‘농업체험코스’ 초등학생 이상 400엔 / ‘무제한 코스’ 중학생 이상 1,500엔, 초등학생 이상 1,000엔

